

축구

4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녹색유니폼 입은 오반석 전북 수비벽 단단해진다

K리그1 ‘챔피언’ 전북 현대가 축구국가대표팀 출신의 베테랑 중앙수비수 오반석(32)을 영입했다(스포츠동아 2019년 12월 16일자 6면 단독보도).

전북은 1일 “태국 프리미어리그 무앙통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오반석을 영입하며 수비를 더욱 견고하게 채웠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수비는 K리그1 4연패와 2006·2016년에 이은 통산 세 번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정상을 위해 전북이 반드시 보강해야 할 포지션이었다. 전북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소실점(32실점)을 달성했다.

지난해 여름 덴진 텐하이(중국)에서 친정팀에 컴백했다가 병역 의무를 위해 상무상무로 향한 권경원(28)의 공백을 메워야 했다. 다양한 후보군을 놓고 폭넓게 진행된 검토 끝에 전북과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이 내린 선택은 오반석이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그는 K리그 통산 198경기(7골·1도움)를 소화했다. 소속 팀에서의 인상적인 활약을 발판 삼아 2018러시아월드컵 최종엔트리(23명)에 발탁됐고,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알 와슬 유니폼을 입으면서 해외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무앙통에서 임대 신분으로 뛰었다.

새해 전북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오반석은 “전북의 목표인 ACL과 K리그1 동시제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에세이 | 2002 전사들이 써내려갈 K리그 드라마

물 들어왔다, 노를 저어라

〈월드컵 영웅들〉

김남일·설기현 나란히 사령탑 데뷔
최용수·유상철 감독과의 경쟁 불만
스토리 입은 K리그 흥행 잘 살려야

#한국축구의 변곡점 중 하나는 1986년 멕시코월드컵이다. 1954년 대회 출전 이후 실패를 거듭하던 한국축구는 무려 32년 만에 세계무대를 밟았다. 비록 조별리그(1무2패)에서 탈락했지만 아르헨티나(1-3 패) 이탈리아(2-3 패) 불가리아(1-1 무)를 상대로 태극전사 특유의 근성을 보여준 무대였다. 주축 멤버는 차범근을 비롯해 조광래, 허정무, 최순호, 김종부, 박창선 등이었는데, 이들은 요즘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했다.

#1986년 멤버 상당수는 현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축구인도 있다. K리그1(1부)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가 대표적이다. 프로구단과 대표팀 감독을 거친 그는 2014년 가을 시민구단 대구를 맡아 번듯한 구단으로 키워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강력한 추진력이 돋보인다. 지난해 DGB 대구은행파크를 건설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 그 덕분에 경기력과 흥행 모두를 잡았다. 조 대표는 선수와 지도자에 이어 행정가로서도 화려한 이력을 써가고 있다.

#올해 또 한명의 1986년 멤버가 주목받고 있다. 조 대표와 연세대 74학번 동기인 허정무 하나금융축구단 이사장이다. K리그2(2부) 대전시티즌을 인수한



김남일 성남FC 감독



설기현 경남FC 감독



최용수 FC서울 감독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하나금융축구단은 4일 창단식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 중심에 허 이사장이 자리한다. 그도 성공한 축구인이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을 지휘했고, 포항과 전남, 인천에서 감독을 했으며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도 부회장(부총재)으로 축구발전에 힘을 보탰다. 현장에서 돌아온 그가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궁금해진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은 4강에 진출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은 성적만큼이나 스타들도 많이 탄생했다. 그야말로 황금세대였다. 모두 현장에서 물러난 가운데 홍명보와 황선홍, 최용수, 유상철, 윤정

환, 최진철 등은 이미 국가대표팀 또는 K리그 감독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다.

#2002년 멤버 중 어린 축에 속한 이들도 이제 감독 반열에 올랐다. 올해 눈여겨볼 인물은 성남FC(1부) 김남일 감독과 경남FC(2부) 설기현 감독이다. 선수로서 정점을 찍은 이들이 2020시즌 프로팀 사령탑으로 데뷔한다. 김 감독은 1부에서 선배인 FC서울 최용수 감독,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과 생존경쟁을 벌여야한다. 김 감독은 ‘가장 이기고 싶은 팀’으로 ‘서울’을 지목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설기현도 준비된 지도자다. 성균관대 감독과 성남 전력강화실장을 역임하다 경남 감독으로 발탁됐다. 기다려

지는 또 한명이 있다. 2002년 멤버 중 맏형인 황선홍은 하나금융축구단에서 재기를 노린다. K리그에서 2차례 우승(포항, 서울)을 한 그는 지난해 연변 푸더(중국)를 맡았지만 팀 해체로 아픔을 겪었다.

#지난해 K리그는 큰 성공을 거뒀다. 특히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순위경쟁은 압권이었다. 그 덕분에 관중은 폭발했다. 올핸 애그거리가 더 풍성하다. 다양한 스토리는 팬들의 관심을 끄는 자극제다. 발판은 마련된 셈이다.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다같이 신바람 나는 K리그를 만들어 가야한다. 새해 첫 날, 벌써부터 개막이 기다려진다.

최현길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ng2@donga.com

‘인도네시아행’ 신태용 감독 “바쁘다 바빠”

A대표팀·U-23·U-20 동시에 맡아
6일 공식 업무…어린 선수부터 점검

2018러시아월드컵 이후 현장을 떠난 신태용 감독(50)의 차기 행선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K리그 사령탑이 공식이 될 때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됐고, 각지에서 많은 러브콜이 쏟아졌다.

1년 6개월여를 ‘야인’으로 보낸 신태용 감독이 드디어 움직였다. 지난해 12월 말 인도네시아행이 최종 결정됐고, 크리스마스 직후 계약서에 사인했다.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U-20 대표팀을 동시에 이끄는 중책이다. 계약기간은 4년.

연말연시를 고국에서 보낸 신태용 감독은 5일 출국, 6일부터 공식 업무에 나선다. 모든 역할이 중요하나 우선순위는 있다. 2021년



신태용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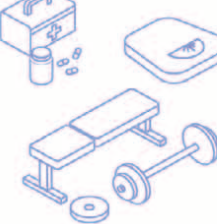
일단 신태용 감독은 U-19 선수들부터 점검한다. 13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발리에 머물며 후보군 60명을 면밀히 체크한다. 이후 20일부터 2주 간 태국에서 강화훈련을 갖고 다음달 일본에서 열릴 국제친선대회에

출전한다. 3월에는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나설 A대표팀에 주력한다. G조 5전 전패로 이미 최종예선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나 태국 원정(3월 26일), 아랍에미리트 홈경기(3월 31일)를 잘 치러 축구 열기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의지다.

신태용 감독은 1일 “기술과 실력이 괜찮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어린 선수들이 좋다고 한다”며 “국민 천성이 유순한 건 약점일 수 있다. 한국축구의 근성과 투지를 불어넣으면 의외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긍정을 노래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관람안내

제2회 동아 건강산업 박람회



전시품목 건강기능 식품 및 음료 | 유기농 식품 및 한방관련 건강식품 | 뷰티&에이징케어 제품 | 다이어트 용품 | 헬스 및 운동용품 | 건강관리용품 및 보조기기 | 수면 및 일링케어 제품 | 클린가전용품 및 하우스팅 | 건강의료서비스

2020 서울 오피스가구 및 오피스페어



전시품목 오피스 가구 (책상, 책장, 의자, 소파, 회의실테이블) | 문구 및 사무용품 | 사무기기 | 사무실 비품 및 가전제품 | 기프트용품 (선물 및 판촉용품) | 오피스 인테리어 | 오피스 인테리어 소품 | 기타 오피스 관련 제품

건강산업 박람회 세미나 일정

장소 : 코엑스 전시장 내 세미나실

일시	시간	세미나 내용
1.3 (금)	10:30~11:30	몸을 통한 마음의 힘 키우기 ▶ 브레인명상 (주)단월드 / 윤성주 파트장
	12:00~13:00	근골격계질환 통증의 원인과 이완 (거북목, 팔저림, 손부종을 중심으로) ▶ 세계건강부드럽히기 / 장완성 사무총장
	13:30~14:30	100세 건강 시니어 플러스 ▶ 삼육서울병원 / 송형순 교수
	15:00~16:00	퇴행성 무릎관절염 이해와 시립솔로지 (뇌활성화운동) ▶ 제일정형외과병원 / 이영민 원장, 왕용우 팀장
	16:30~17:30	100세 시대! 스트레스 자가힐링법 ▶ 브레인트레이너협회 / 박종찬 교육위원
1.4 (토)	10:30~11:30	100세 시대, 건강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 (사)통합의학진흥연구원 / 김신태 상임이사
	12:00~13:00	걷기운동 후 하지 통증의 유형과 이완 ▶ 세계건강부드럽히기 / 장완성 사무총장
	13:30~14:30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웃는 법 ▶ KBS스포츠메디칼학원 / 정은희 교수
	15:00~16:00	지긋지긋 무릎관절염, 제대로 치료하기 ▶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 김준식 부장
	16:30~17:30	무너진 내 치아 회복하려면... 임플란트? 틀니? ▶ 알프스치과의원 / 박경아 원장

전시기간 2020년 1월 3일(금)~1월 4일(토)

관람시간 10시~18시 (토·일요일도 동일)

전시장소 coex 코엑스 C홀 (2호선 삼성역/9호선 봉은사역)

주 최 동아전람

관람문의 TEL ▶ 02) 780-0366

Homepage ▶ www.dong-a-fairs.co.kr (한글 인터넷주소 : 동아전람)

※동아전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하시는 분께는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